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0년 6월 16일(화) 9:00	매 수	2매
보도시기	2020년 6월 16일(화) 18:00	사 진	없음
담 당 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박나연 전문연구원 ☎ 044-414-1245 ✉ nypark@kiep.go.kr		
배포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협력팀장 ☎ 044-414-1061		

한국, 2020년 IMD 국가경쟁력 23위로 전년대비 5단계 상승

- 2020년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 전년대비 5단계 상승, 2000년 이래 최대 폭 상승
- 싱가포르는 지난해에 이어 1위, 중국과 일본은 각각 20위와 34위로 전년대비 하락

2020년 6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orld Competitiveness Center, WCC)가 발간한 **『2020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2020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한국이 총 63개국 중 23위를 차지**하였다.

IMD WCC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칭화대,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등 각국 파트너기관과의 협력하에 1989년부터 매년 주요 4대 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에 대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올해 **한국은 전년대비 5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 **2000년 이래 최대 폭으로 순위가 올랐다.**

주요 결과를 보면 4대 분야 중 지난해와 순위가 동일한 경제성과(27위) 부문을 제외하고, **정부효율성(31→28위), 기업효율성(34→28위), 인프라(20→16위) 부문에서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기업효율성 부문 중 **노동시장(36→28위), 경영관행(47→36위), 행태·가치(25→15위) 부문이**

크게 개선되었다. 낮은 장기실업률, 간소한 창업절차, 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 높은 R&D 투자 등이 강점으로 평가되면서 순위 상승을 견인했으나, 기업 이전에 대한 불안감, 높은 관세장벽, 기업 이사회의 비효과적인 관리·감독, 환경관련 다자협약 체결 부족 등이 약점으로 꼽혔다.

싱가포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가 8위에서 6단계 상승한 2위, 스위스가 1단계 상승하여 3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전년대비 7단계 하락한 10위를 차지한 한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019년 2위였던 홍콩이 3단계 하락한 5위, 중국이 6단계 하락한 20위, 일본이 4단계 하락한 34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영귀 연구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번 순위 상승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경제 불안정 속 일자리 및 기업 보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혁신적이고 포용적 경제성장 견인 △북한 비핵화 과정 촉진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 회복력 강화 △세계 무역과 일방주의 구조 변화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EP는 IMD의 한국 파트너기관으로 2013년부터 통계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실시 등 관련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결과는 IMD WCC 홈페이지(http://www.imd.org/wc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IMD 국가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지난 25년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1989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들에 관해 발간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고서로,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관리하고 있는 국가의 능력을 분석하여 순위를 책정해오고 있다.

별첨. 2020년도 IMD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

/끝/